

표 4. 『이견지』 수록 지뢰의방 분석

Table 4. An Analysis of Zhigual(志怪) Prescriptions in Yijianzhi

| 번호 | 의방명칭 | 병증/처방 | 담송 분초서 | 담송 의방서 | 『본초강목』 설명 | 의방의 특징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
| 2 | 夢藥方 | 瘡毒으로 인한 설사/ 옹황, 감초 | • 『증류본초』 권4 「雄黃」 瘡에 대한 언급 없음. 해 독 효능 언급,瘡毒으로 인 한 설사 치료 언급은 보이 지 않음 | • 『외대비요』 권25, 「痢」 중, “疳痢 方六首”에 옹황-용래 1건 • 『성해방』 권59 痢를 주로 다룸, 이중 “治一切痢諸方”에서 옹황 -용래 1건 • 『성제총록』 권74-권78 「泄痢門」 중 권78 「疳瀉」 옹황-용래 1건, 권78 「疳瀉」 옹황-용래 3건 • 『화제구방』 권6, 「治瀉痢」 옹황 -용래 없음 | 『본초강목』 권9, 「雄黃」: 伏 瘡泄痢 효능 언급 후 우유 문 의안 수록 | • 서독으로 인한 설사 치 료에 옹황을 활용한 비 교적 이른 사례 |
| 4 | 異人癰疽方 | 종기/ 배농내보산 | • 『침금요방』 권22, 『외대비요』 권24, 『성해방』 권61, 『성제총록』 권131, 『화제구방』 권18 등에 수록 • 胡權이 異人으로부터 받은 후 홍광에게 전하고 이후 홍광, 홍준, 홍매 형제에 의해 확산 | | | • 관방의방서와는 다른사 대부 진송 서사 확인 • 의방 지식의 확산 |
| 5 | 夢龜告方 | 손발 무리짐/ 생지황 | • 『태평성해방』 권67, “治腕折破骨傷筋諸方”에 수록 • 허숙미, 『普濟本事方』 권6, 「金瘡癰疽打撲諸瘡破傷風」에 수록 | | | • 의방 지식의 확산 |
| 7 | 李三妻 | 時疾/ 竹葉石膏湯 | • 시질 치료에 죽엽석고탕 처방(12면 참조) | | | • 의방 지식의 확산 |

| | | | | | |
|----|---|--|---|---|---|
| 8 | <p>8 公安藥方</p> <p>옹저(胸臆)/ 末藥, 瓜蒌, 乳香</p> | <p>• 『식료본초』 권1 「栝樓」: 下乳汁, 治癰腫</p> <p>• 『증류본초』 권8 「栝樓」: 乳癰에 좋다고 언급</p> | <p>• 『성해방』 권61-권64: 유향, 몰약, 과루 각각 용례 여러 건, 유향과 몰약 함께 사용한 예 여러 건, 과루근·용례 여러 건, 새 약재를 동시에 사용한 사례 찾기 어려웠음</p> <p>• 『성제총록』 권128-권131, 「癰疽門」: 유향·용례가 많음, 유향과 몰약, 유향과 과루를 함께 쓴 사례 보임. 과루 용례 다수 보임.</p> <p>새 약재를 동시에 쓴 것은 찾기 어려웠음</p> <p>• 『성제총록』 권128, 「癰疽門」: 乳癰」, 과루·용례 3건</p> <p>• 『화제구방』 권8, 「治瘡腫傷折」: 유향과 몰약 함께 쓴 사례는 수 건, 과루 용례도 보임</p> | <p>• 『본초강목』 권18, 「栝樓」: 消鍾毒, 乳癰發背, 用용치료에 (元) 『李仲南永類方』의 방 인용(과루근, 유향)</p> <p>• 『본초강목』 권34, 「沒藥」: 時珍曰 乳香活血, 沒藥散血, 皆能止痛消腫生肌, 故二藥每每相兼而用.</p> | <p>• 유향에 과루가 좋다는 지식 알림</p> <p>• 유향, 몰약, 과루를 함께 사용해 가슴 응지를 치료한 이른 방제. 이시진 이 인용한 『李仲南永類方』의 방 보다 이른 사례</p> |
| 12 | <p>12 神告傷寒方</p> <p>상한/ 계지탕, 죽엽석고탕</p> | <p>• 『상한론』 권3, 「辨太陽病脈證并治」: 桂枝湯은 桂枝, 芍藥, 生薑, 甘草, 大棗로 조제, 태양병으로 맥이 뜨고 약할 때 쓰임</p> <p>• 『상한론』 권7, 「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」: 竹葉石膏湯은 竹葉, 石膏, 人參, 麥冬, 半夏, 甘草, 粳米로 조제. 상한 후기가 약하고, 구토가 나거나 맥이 이미 풀어지고, 머리가 약해 곡물을 소화할 수 없을 때 쓰임</p> <p>• 의사는 맥이 약하다며 계지탕 처방.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양자정에 신은 죽엽석고탕 처방</p> <p>• 『상한론』에서 계지탕의 용례는 많음. 죽엽석고탕은 한 건. 일반적으로 상한 치료에 계지탕이 많이 쓰이지만 죽엽석고탕을 써야 할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담고 있음</p> | <p>• 상한론에서 증시한 계지탕과 죽엽석고탕의 처방에 주의사항 알림</p> <p>• 오진의 위험 경고</p> | <p>• 상한론에서 증시한 계지탕과 죽엽석고탕의 처방에 주의사항 알림</p> <p>• 오진의 위험 경고</p> | |

| | |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
| 13 | 仙傳治疫方 | 大疫/ 黑豆, 甘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식료본초』 권下, 「大豆」 若和甘草煮湯飲之, 去一切熱毒氣 『증류본초』 권25, 「生大豆」 塗癰腫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외대비요』 권24 「용저발배」: 용저 치료에黑豆/大豆 용레 보이지 않음 『성해방』 권61-권64, 흑두 용레수 간 보임 『성제총록』 권128-권131, 「용저문」: 흑두 용레 보이지 않음, 대두 용레 보임 | 『본초강목』 권24 「大豆」: 疫癘發腫에 효과 언급, 『이견지』의 이 의안 인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방 지식의 확산 |
| 14 | 生薑治嗽 | 感寒기침/ 생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증류본초』 권8, 「生薑」: 咳逆上氣, 止嘔吐, 生與干并治嗽. 『본초강목』 권26 「生薑」: 寒熱痰嗽, 咳嗽不止 『외대비요』 권19, 『태평성해방』 권46, 『정화성제총록』 권65-권66, 『태평혜민회제국방』 권4 증 咳嗽 치료에 생강 용레 다수 확인 동일한 의방 확인: 虞搏, 『醫學正傳』 「咳嗽」 (1515): 寒嗽, 古方有以生薑切作薄片, 焙干爲末, 糯米糊爲丸, 如芥子大, 空心清米飲下三十九. | 『본초강목』 권26 「生薑」: 寒熱痰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방 지식의 확산 | |

| | |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
| 15 | 礪砂治骨哽 | 고기뼈목걸림/ 南礪砂 | 『증류본초』 권5, 『蓬砂』消痰 止嗽, 破症結, 喉痺. 『衍義』 를 인용하면서, 南番者의 효 능 강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외대비요』 권8, 『諸骨哽』: 봉사 용례 없음, 礪砂 용례 확인 • 『외대비요』 권23 이후 관련 의방 중 봉사 용례 보이지 않음 • 『성혜방』 권18, 『治熱病咽喉腫痛 諸方』: 礪砂 용례 확인 • 『성혜방』 권35 이후 관련 병증에 대해 礪砂 용례 다수 확인. 그러 나 『治諸魚骨鯁諸方』 『治誤吞 諸物諸方』에서는 봉사 용례 찾 지 못함. • 『성제총록』 권122-권124 중 이후 관련 병증에는 봉사 용례 보임. 그러나 권124 『骨鯁』 『誤吞諸物』 에는 봉사 용례 찾지 못함 • 『화제국방』 권7, 『治咽喉口齒』: 礪砂圓, 礪砂散 등 보임. 모두 뼈 의 걸림과는 무관 • 『남봉사』 용어는 당송 의방서에 보이지 않음 | 『본초강목』 권11, 『蓬砂』: 서봉사는 백색, 남봉사는 황색, 모두 딱딱한 것을 연하게 하며, 요사와 비슷 하다. 인골, 骨哽結核 인골 에서 『이진지』 남봉사 의 인 인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송 의방서는 이후 관 련 병증, 이후 용저, 가 래, 붓기 등에 봉사 사 용. 고기뼈의 걸림에 봉 사를 활용한 사례 보이 지 않음 • 고기뼈걸림에 봉사를 사 용한 비교적 이른 사례 • 남봉사의 효능 강조, 본 초 지식 확산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

원어: 중국 의학지식 전승으로 하나의 선명: 송대(宋代) '지뢰의안(地瘵藥)'의 특징과 의미

| | | 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|
| 16 | 薑附治瘵 | 가슴 울적/ 생강, 쟈부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증류본초』 권8, 『생강』 효능에서 울적나 피부질환 관련 언급은 없음 『증류본초』 권9, 『莎草根』 除胸中熱, 瘵瘵瘵인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침요방』 권22, 『疔腫癰疽』: 생강 용례 보임, 쟈부자 용례 보이지 않음 『외대비요』 권24, 『癰疽發背』: 생강 용례 보임, 쟈부자 용례 보이지 않음 『태평성해방』 권61-권63, 울적 발배 관련: 생강 용례 보임, 조제시 생강을 첨가하는 경우 보임. 쟈부자(沙草根) 용례는 보이지 않음 『성제총록』 권128-권132, 『웅지문』: 생강용례 다수 보임. 쟈부자(沙草根) 용례 보이지 않음 『태평해민화제국방』 권8, 『治瘵腫傷折』: 쟈부자(沙草根) 용례 보이지 않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본초강목』 권26, 『생강』: 부방에서 發背初起 처방을 언급, 鐵芋의 『海上方』 인용 『본초강목』 권14, 『沙草』: 쟈부자: 주치에서 시진을 출처로 밝히며, 癰疽瘡瘍 언급. 부방의 울적장양에서, 曾孚先(송)의 말 인용, 常器(남송)의 말 인용, 그리고 獨勝散 인용(진자명『외과강요』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송의방서의 경우 중기치료에 향부자를 적극 활용하지 않음 웅지 치료에 생강과 향부자를 적극 활용한 이 큰 사례 진자명의 獨勝散 보다 이른 기록 |
| 17 | 乳香飲 | 허리뼈 다침/ 乳香飲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항음의 虎骨, 敗龜, 黃芪, 牛膝, 草薢, 續斷, 乳香 등은 모두 상절, 골절, 요통 치료 효능 인 가능 유항음과 동일한 의방은 『침요방』 권19, 권25, 『침요방』 권20, 『외대비요』 권17, 권29, 『태평성해방』 권44, 권67, 『성제총록』 권85, 권144, 권145, 『화제국방』 권8 등에서 보이지 않음 그 외 당송 사찬 의방서에서도 관련 의방을 찾기 어려웠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전 자료 중 『이견지』가 가장 이른 기록으로 확인 방제의 소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전 자료 중 『이견지』가 가장 이른 기록으로 확인 방제의 소개 | |

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8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에 지황과 椒를 활용한 의방지식의 확산 • 『본초강목』은 동일 의방 인용하나 명초 『보제방』 인용 • 『이견지』의 치목질방은 『보제방』보다 이른 사례</p> |
| 19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/ 生熟地黃, 椒</p> | <p>안질에 지황과 椒를 활용한 의방지식의 확산 • 『본초강목』은 동일 의방 인용하나 명초 『보제방』 인용 • 『이견지』의 치목질방은 『보제방』보다 이른 사례</p> |

비고: 『이견지』 수록 19건 지피의방 중 지면의 한계로 본문 III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가하지 않은 12건 의방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.
III장에서 분석이 제시된 7건의 의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표에서는 생략한다.